



# 대학주보

## 교수들이 본 후마의 과제 '지원 회복'과 '양캠 소통'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② 교수들이 바라보는 후마

#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모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2회차에선 교수가 바라보는 후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이를 위해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해 후마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학교 교수 154명의 답변을 수집했으며, 교원 14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회차 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학생이 후마의 목표와 취지를 잘 알고 공감하기보다 단순 교양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2회차 기사를 준비하며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수 다수가 후마 교육이 학생들에게 관성적인 필수과목으로 전락했다는 것에 동의했다. 출범 초기 대학 본부의 많은 지원 속에서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을 혁신하겠다고 나선던 동력이 현재는 상당 부분 약화됐다는 것이다.

154명이 응답한 우리신문의 후마에 대한 교수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점에서 제도과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5%에 달했다.

### 소속 학부생 없어 예산에도 제한 다양한 프로그램·새로운 교수 지원 어려워

후마에는 타 단과대와 달리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 예산이 없다. 기본적인 강사료 등 인건비와

수업 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고 있다.

그 외 교육과 관련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본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후마 교수들은 이러한 예산 신청이 수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캠 후마 김성(물리학) 교수는 “보통 각 단과대는 1년치 예산을 자율 예산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마는 그렇게 확보된 예산이 없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후마는 출범 직후와 비교해 현재 지원되는 예산도 줄어 교원 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캠 후마 고인환(국문) 교수는 “후마 초기엔 본부에서도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을 혁신하자’는 지향점을 가지고 교수진 채용을 많이 하고 강력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졌다”며 “지금은 이같은 지원이 부족하고, 교수진도 새로 충원되지 않아 정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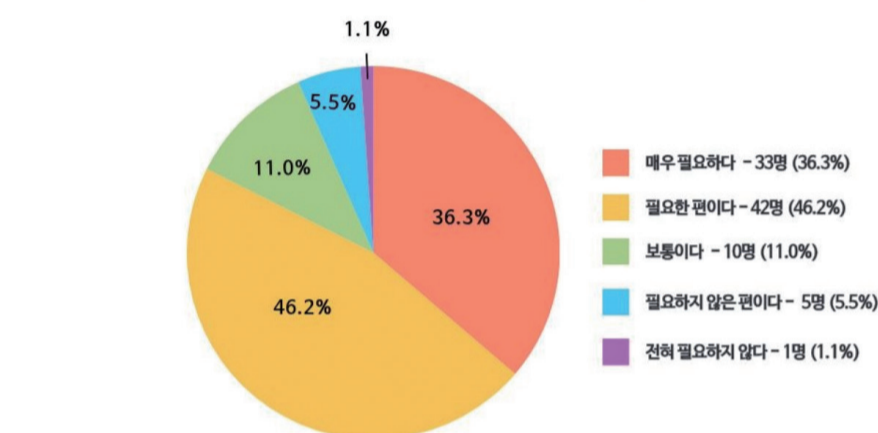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코로나 이후로 학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던 것이 전공 학과에서는 복원을 조금씩 하고 있지만, 후마는 아직 그대로”라고 전했다.

### 양 캠퍼스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 '소통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

후마 자체적으로는 양 캠퍼스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국제 양캠을 통합적으로 이끌던 설립 초기 대학장 직은 도정일 초대 대학장 이후 10년 가까이 공석이다. 사실상 양캠 후마 간 공식적·정기적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후마 설립 당시부터 지난 2022년까지 후마 소속이었던 자유전공학부 배재형(수학) 학부장은 후마 소속 당시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설립 당시 의도했던 양 캠퍼스 간의 '유기적 협업'이 약화되고, 교육 및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 후 1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응답자수: 91명)



우리신문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대량메일 시스템을 통해 후마에 대한 교수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행정 운영이 개별화된 점을 꼽았다.

배 학부장은 “대학장 산하에 있는 총괄 기구인 교양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양 캠퍼스가 하나의 철학과 방향을 공유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이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각 캠퍼스 학장 산하의 소위원회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후마 이은정(비교문학) 교수는 “도정일 대학장님께서 퇴직하신 후로 다음 대학장님이 없으셨고, 양 캠퍼스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교양 교육 단위와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절대평가' 무조건 도입 vs 시간 필요

이같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가시화된 사례가 절대평가 논의다. 양캠 협의체 부재와 함께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캠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후마 강조에 대한 절대평가 전환을 의결한 바 있지만 국제캠은 학점인플레의 축소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캠 측의 절대평가 전환 논의 과정이 국제캠에는 통보처럼 전달됐다는 게 국제캠 교수들의 인식이다. 이은정 교수는 “절대평

가 전환을 서울캠에서 주도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평가하는 교수가 준비돼야 한다”면서 “절대평가와 관련해 공유 받은 게 없다 보니 ‘서울캠에서 논의됐던 걸 왜 우리에게 명령식으로 하달하지’와 같은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 교양 운영 방향성, 다양한 목소리 큰 틀 통일하되 세부적 차이 있어야

양 캠퍼스의 교양 과목 운영 방식에 관한 시각도 나뉜다. 교수 대상 인식조사에서 양 캠퍼스 후마 운영에 관해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30.53%)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일부 차이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32.63%), 그리고 ‘캠퍼스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야 한다’는 응답(29.47%)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서울캠 후마 정화영(컴퓨터공학) 교수는 “후마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제도적인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캠퍼스별 특성이 다르다 보니 이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 교수는 필수로 듣는 과목을 통일하되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필수 교과를 지정하기보다 배분 영역에 포함시키고, 배분 5개 영역 중 각각 한 과목씩은 반드시 수강하게 하는 식으로 강제성과 자기 선택을 융합하는 건 어떨까 싶

다”고 설명했다.

###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후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식조사에서 생성형AI 시대에 교양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길러야 할 역량을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고른 응답자가 52.63%로 가장 많았다. 직접 만나본 교수들 역시 사고와 논의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후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재형 학부장은 “후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간다운 고유성’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생성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기술 발전이 초래할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 교수들의 생각 역시 유사했다. 정치외교학과 윤성이(정치) 교수는 “전문 지식은 AI가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의 강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컴퓨터공학과 이승규(공학) 교수 역시 “AI의 시대라고 해서 AI 프로그램의 기술을 후마에서 가르치는 것은 후마가 그저 교양 교육 대행사로 빠지는 길”이라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인공지능의 미래 사회 적용 방식 등 전공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 특별 기획

# “후마는 학문다운 학문의 초석을 놓는 일”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③ 조인원 이사장 대담

# 2011년 출범한 우리 대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 신문은 15년이 경과한 지금,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문는다. 지난 1회차에선 후마를 바라보는 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번 회에서는 후마를 설계하고 실행한 조인원 이사장(당시 총장)을 만나 15년 전의 상황을 회고해보았다.

※ 지면 제약으로 대담 내용이 편집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디지털 대학주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타 대학의 교양 교육이 폭넓은 지식 함양에 방점을 둔 것과 달리 후마는 ‘학문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마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은 새로운 사색과 사유의 장을 여는 곳입니다. 학문 그 자체에 대한 근본을 묻고 답하는 곳이지요. 그런 기대로 젊은 시절 대학 공부가 궁금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랐죠. 교수로 재직하게 됐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전공 진입에 앞서 학문함의 진지한 마음 자세와 깊은 사색, 사유에서 오는 배움의 깊이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학문함이란 무엇이고, 어떤 물음을 물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답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사유의 깊이, 인식론과 방법론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정답을 찾는 공부 아닌 학문함 그 자체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했다. 깊은 삶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주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후마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죠.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교양교육 전담 독립**



지난 15일 우리신문은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15년의 의미를 두고 대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권도연 대학주보 편집장, 조인원 이사장.

**단과대학’입니다. 단순히 교양 과정을 개편하는 수준을 넘어 왜 단과대학이라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했는지, 당시 이사장님께서 구상하셨던 대학 교육의 본질적 전환은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단과대학이라기보다는 지식의 지평을 연결하는 ‘칼리지’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우리대학은 다양한 단과대학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지식의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죠. 넓게 보면, 인문학과 과학의 공통 분모를 배우고 경험할 때 전공의 깊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단과대학이 아니라 후마니타스칼리라고 명명했던 거예요.

전공 분야엔 분화된 방법론과 인식론이 있어요. 하지만 학문 그 자체를 넓게 볼 때 학문의 저변과 접근 방법, 이를 통해 인간과 사회, 세계를 어떻게 전공 과정과 연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공 진입 전에 익혀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후마 과정은 여러 단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지요. ‘쉬운 기본’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문을 바라보는 사유 방식과 철학’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고등교육, 고등학술 기관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에 직접 답을 하면, 후마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 전환이기보다는 전공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사유와 인식 능력을 키워 학문다운 학문을 할 수 있는 초

석을 놓는 일입니다.

**후마 설립 당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까. 반대 의견을 어떻게 설득하셨고, 구성원 간 의견 공유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제도와 기구가 만들어진 후에는 일정한 관성과 관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후마 설립 전 이야기에요. 전공 차이로 교양교육에 관한 인식이 달랐어요. 학문함의 근본은 다를 수는 없는 것인데, 인식 차이는 아주 오래도록 좁혀지지 않았죠. 지금도 만일 그렇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듯해요.

후마 설립 당시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공청회도 하고 학생들 얘기도 자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총장과의 대화, 특별 강연과 질의응답 같은 자리에서 학생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후마 출범식 때 일입니다. 오후 5시쯤 끝나서 나오는데 공영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언론 매체에 처음 노출되고 나서 각 언론사 취재도 많았고, 기사 보도도 많았어요. 그때는 인문학의 실용성 문제가 사회 공론의 장에 넓게 퍼져 있던 때죠. 대학 내 우려의 시선도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뜻있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호응했죠. 돌이켜 보면, 그런 일이 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해요.

**후마 출범 당시 설계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죠. 총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초대 학장님과 40~50여 명의 교수님들이 1년 남짓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셨죠.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도 마다하지 않고, 타 대학이 부러워했던 훌륭한 교제도 만들었습니다. 안정된 후에도 후마 교육의 깊이를 더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어요.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 ‘성찰적 글쓰기’... 그런 교과 범주가 성숙한 학문함과 새로운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리 사회 대학가에 유례없던 창조적 과업에 도전한 것이죠. 이와 함께, 학생들의 현장 학습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또 다른 배움의 축인 ‘실천 인문학’을 염두에 두면서 지역사회, 국제사회 현장 학습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결합해 보는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됐죠.

**설립 당시의 목표 중 하나는 지구적 실천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천하는 후마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앞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론과 실천, 학문과 실천, 이런 주제는 엄격

하게 양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기억 속에, 현대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엔 아담 스미스도 있고 카를 마르크스도 있죠. 한 사람은 학문을 주로 한 분이고, 한 사람은 학문과 이에 관련된 실천을 병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상가의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크죠. 삶의 현장에 나가 움직이는 것만이 실천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 형태의 현장 학습과 같은 활동이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후마에서 무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 문제를 현장에 가서 리포트도 쓰고 봉사 활동도 하는 그런 활동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 현장, 다양한 문명과 종교 발상지에 가서 어떤 사유와 인식, 활동이 왜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죠. 지구촌 곳곳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체험과 국제기구, 시민 단체, 기업, 연구소, 싱크 탱크에서의 경험... 그런 경험도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일 거예요. 앞으로 대학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 아닌가 해요.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혁신적인 시도들이 하나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설립자로서 구성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큰 전환의 시대’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와 기회, 기회와 위기 요인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죠. 인간의 생존과 실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어요.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문명사적 국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후마 설립 초에도 그런 위기의 조짐이 당연히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와 인간, 새로운 시민성이란 큰 주제를 놓고 고민했지요. ‘문명사 성찰’.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후마 교육의 또 다른 근간이었죠. 그 정신은 이어가되,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합니다.

변화의 핵심엔 사유와 인식의 지평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 현대문명이 초래한 경계와 환원, 기계론적 사고가 초래한 다양한 대립과 충돌 문제예요. 그런 사유의 한계는 이제 극복돼야 하죠. ‘융합적 사유’, ‘전일적 사유’에 대한 깊은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면에서 계속 →

또 다른 차원에서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미래 예찰 기법'에 대한 학습 기회입니다.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미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 사뭇 다르죠.

오늘의 현실적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면서, 기후, 생태, 파괴적 과학 기술이 초래하는 유례없는 문명사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내는 일은 각자 생존과 실존의 문제가 걸린 과업이죠. 미래 세대에 주어진 도전 과제는 인류사적 차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변화와 전환이 절실하고 절박한 이유죠.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문명사적 변화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찾아 나서는 후마의 생명력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점을 함께 깊이 고민해 주었으면 해요.

최근 서울과 국제 후마가 마치 두 개의 다른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마는 전공을 초월하는 배움과 학습의 장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제 생각엔 대학은 고등 교육·학술기관이라는 점에서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 문과 이과가 따로 없어요. 문과생들도 과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론과 가설, 개념과 추론의 인과론적 엄정성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겠죠. 이 문제는 결국 인간과 세계, 자연과 우주의 이치를 깊이 아는 길이기도 해요. 인문학적 성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보편 가치의 인간적 의미를 인문학을 통해서 배우죠. 가장 핵심적인 인문학의 가치는 인간 영혼의 심원한 의미, 공동체의 중요

성, 타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인간적 감수성이죠. 그런데 그 감수성이 우리 모두 공감하는 '보편'인가 하는 물음은 심오한 과학적 물음과 잇닿아 있어요. 이과 학생들은 역으로 '과학의 주체'에 관한 생각을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주체는 인간이겠죠. 그런 점에서 과학이 중시하는 객관성, 보편 타당성은 주관에 깃든 인간 정신과 의식 세계에 엮물려 있죠. 인문적 성찰과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예요. 서울과 국제 후마는 그런 점에서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특별 대담 당시 이사장님께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AI가 지식을 생산하고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는 환경에서, 대학이 길러내야 할 미래 세대의 새로운 인간상은 무엇이냐라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들보다 학생들, 미래 세대가 AI 사용 방법이나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 왔으니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안이 더 문제지요.

AI 발전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고 있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수년 내 퀀텀 AI 상용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도 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주 모든 입자와 파동의 초 미시 정보를 인류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오면 우리는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난치병과 불치병 극복, 중력과 시공의 조작 가능성, 새

로운 우주 에너지원과 같은 것들의 실용화에 도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학문적 활로를 열어가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에 걸맞은 교육과 학습 기회가 마땅히 학생들에게 주어져야겠죠. 문제의 핵심은 인식과 사유, 상상과 통찰의 지평을 얼마나 넓고 깊게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또 AI와 상호 작용하면서 어떤 질문의 깊이를 만들고, 자신과 세계, 미래를 위한 실천의 지평을 여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가 개인과 문명사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대학주보 창간 70주년 기념 인터뷰 이후 1년 만에 독자들 만나십니다. 그 사이 학자로서 관심사나 교육자로서 고민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요즘 일부 국가에서 인간 아닌 지적 존재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UAP라고 하는 현상, 이전에 UFO라고 불렀던 것들이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에요. 2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기심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 전제가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학문적 차원, 개인적인 시야와 시선의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폭력, 국가 차원의 전쟁이 왜 수없이 반복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고,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면, 이론상으로 수없이 많은 지적 존재가 존재해야 할 텐데, 모두들 어디에 간 거냐라는 재밌는 질문

을 던질 수 있죠. 재밌는 해석 중 하나가 지적인 존재가 고도화되면 무기를 만들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자를 공격하면서 폭력과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수십억 년 앞선 문명도 다 멸망했을 거라는 것이예요.

만약에 지구에 개입해온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런 내부의 갈등과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인문학과 과학을 가지고 멸망해야 할 운명을 극복하고 지구에 왔을까요. 이렇게 앞선 문명인데 왜 우리 지구를 정복하지 않고 있을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게 외계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문학, 인간의 과학 체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대담을 마친 후 이사장은 대학주보 기자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었다. 왼쪽부터 이환희 기자, 조인원 이사장, 권도연 편집장, 이지수 편집간사.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 대학주보 71 창간주년

더 많은 콘텐츠는 대학주보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세요!

카메라로 QR 스캔 → '대학주보' 인스타 팔로우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khunews\_jubo

4 기획

# 투표율 50%에 멈춘 학생자치, 개표 요건 다시 물어야

## 투표율 미달 · 연장 투표 반복, 국내외 대학은 기준 완화 움직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 우리학교 양캠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로 인한 연장 투표와 선거 무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과반수를 무조건 충족해야 하는 현행 개표 요건이 현 시대에 합당한 기준인지, 그리고 개표 요건을 개편한 국내외 대학 사례를 살펴봤다.

### ‘과반’ 채우기 힘들어 자치 동력 잃는 대학 선거

지난 3월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는 양캠 모두 개표 요건인 투표율 50%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함께 진행됐던 국제캠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역시 투표 기간을 3일 연장했음에도 투표율 미달로 결국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가에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투표 기간 연장’ 공지는 학생 자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0%라는 수치가 개표 기준으로 자리 잡은 배경엔 민주주의의 ‘과반수’ 대원칙이 있다. 정치외교학과 임성호(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에서 50%라는 수치는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반수’의 대원칙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징성이 학생회 선거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가 변화한 투표 환경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며 투표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는 매년 저조하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 참여도가 높았던 과거에 설정된 ‘투표율 50%’ 기준이 이제는 학생 자치의 정상 작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다.

과반 기준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연장 투표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 수행의 지연을 초래한다.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올해 보궐선거 기간 연장 투표 당시를 회상하며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를



50% 개표 요건 미달로 선거 무산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도의 유연성과 최소한의 정당성에 대한 대립이 이어진다

(사진=대학주보 DB)

받을 수 없어 집행부 구성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히 하루 이를 미뤄주는 것이라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선거 무산은 학생회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선출직 단체장의 정당성이 없는 비대위는 학생회 체제에 비해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자유전공학부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비대위장은 “비대위는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현 개표 기준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정찬(건축학 2025) 씨는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 무조건 투표율 50%를 채우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같다”고 말했다.

서준영(컴퓨터공학 2025) 씨는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선거 기간만 되면 매년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를 진행한다는 공지를 봤다”며 “50%라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기 위

해 의미 없는 기한 연장을 거듭하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 과반수 개표 기준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 선거에 대한 피로감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 개표 기준 완화부터 폐지까지 현실적 대안 찾는 국내외 대학들

국내외 대학들은 이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고려대와 서강대는 각각 2017년과 2000년대 후반, 개표 가능한 투표율 기준을 전체 정회원의 3분의 1 수준인 33.3%로 변경했다.

당시 고대신문 기사에 따르면 고려대 지속가능 자문위원회 정한을 위원은 유효 투표율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회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대표성과 학생회 유지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반수라는 상징성에 얽매기 보다는 자치 기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 사회의 명맥을 잇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양대는 세척상 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적으로 개표해야 한다. 투표율이 개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북대 역시 지난 지난해 9월, 기존 50%였던 개표 요건을 45%로 완화했다.

해외 주요 대학은 절대적인 수치보다 선거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대의성의 핵심으로 본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회(ASU) 선거는 총학생회장 선출 시 별도의 최소 투표율 정족수를 강제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10~20% 대라도 과정이 공정했다면 최다 득표자를 인정한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회 역시 매우 낮은 정족수를 두거나 제한을 없애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당선 이후 자치 기구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 능력을 통해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제도의 유연성 vs 최소한의 정당성

이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학생 자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학교 역시 새로운 기준 마

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 교수는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50% 이상의 투표율을 강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는 개표를 위한 최소 투표율 요건이 없으며, 단체장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조차 33%를 기준으로 삼는다. 임 교수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 역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일 수 있다”며 “50%라는 인위적인 마지노선에 얽매이기보다는 선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결의 원칙에서 ‘50%’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과 그 무게를 고려할 때 선부른 개표 요건 조정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외교학과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50%는 구성원의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하고 선출된 대표가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회가 먼저 취업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에 대한 공론장을 만들고 그 효능감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알바) 고용난 속 일부 학생들은 고수의 알바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원희재 기자)

**불법고수익 @cometomalya 고수익알바 | 위험일자리**  
 날\*\*\*\* | 2026-03-07 09:36:01 | 조회 401

불법고수익 | @cometomalya | 고수익알바 | 위험일자리  
 [2026 해외 취업] 동남아-중국 전역 고수익 해외 TM 구인구직 통합 안내 새로운 기회와 압도적인 수익을 찾고 계신가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전역과 중국 주요 도시에서 활동할 해외 TM 인재를 모집합니다. 초보지도 가능한 풀알바부터 베테랑을 위한 고수익 업무까지, 안전이 보장된 최고의 본사 직영 시스템을 확인하세요.

● 주요 모집 지역 및 국가별 일자리  
 지원하는 아시아 전역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특화된 고수익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 동남아시아 핵심 거점  
 태국: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지역 태국TM 및 태국티엠구인.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다낭 지역 베트남구인구직 및 베트남TM 상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 말레이시아취업 및 고수익알바.

기타: 필리핀(마닐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두바이 지역 해외TM구직 환영.

2. 중국 및 중화권 지역  
 중국 주요 도시: 광저우, 상하이(상해), 칭다오(청도), 옌타이, 위해, 충칭, 우한, 쑤저우, 시안, 칭두 등 중국 전역 중국티엠구인.

수익구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위험고수익 알바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데이나이스호텔 자유계사판 게시판 캡처)

익 알바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다. C 씨는 “편한 서빙 업무와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설명만 보고 지원했다”며 “같이 일하던 대학생 동료의 성추행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강도 육체 노동 알바 역시 위험 요소다. 물류 상하차, 행사 설치, 막노동 등은 단기간에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상 위험이 크다. 김 씨는 “이전에 몇 번 상하차 알바를 간 적이 있는데 대부분 오랜 기간 일하신 분들이 많아 처음은 대학생에게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며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점점 높아지는 알바 문턱  
환경 개선을 위해선**

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무인화 기기를 도입하며 알바 고용난은 더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세 배 증가했다. 신 씨 또한 “우리 가게뿐 아니라 주변 가게에서도 키오스크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도입 이후 큰 비용 절감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알바 고용난 해결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교육원 최흥기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법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관련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수익 단기간 알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용24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불법업장을 필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좁아진 알바 자리, 위험해진 학생 노동 쪼개기 고용 늘고 고수익 알바 유혹 커져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 고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속, 자영업자 경영난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알바) 자리도 줄고 있다. 남은 알바 자리마저 쪼개기 알바가 대부분이고, 고수의 알바의 유혹으로 알바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다. 우리신문은 자영업자, 알바생, 전문가를 만나 학생들의 불안한 노동환경과 이에 대한 대책을 들어봤다.

**쪼개진 근무시간,  
좁아진 알바 자리**

“많은 곳에 알바 지원을 해도 연락 오는 곳은 거의 없어요.” 김동규(컴퓨터공학 2025) 씨는 최근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알바 고용난이었다. 알바 고용 위축의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고용 방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이른바 ‘쪼

개기 알바’다. 이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형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고용인은 기본급의 20%를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학교 주변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바쁜 3~4시간 위주로 시간을 쪼개 여러 명의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다. A 씨는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근로 시간을 피크타임 위주로 줄이고 요일별로 알바생을 채용하고 있다”며 “평균 매출이 적은 요일에는 알바생 없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작년 기준 106만 1,100명으로, 2015년(29만 6,300명)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층은 전체 초단시간 근로자의 16.9%를 차지해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재 3개의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 B 씨는 “최근 일주일에 4일 이상 일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기 어려워 여러 알바를 함께 하게 됐다”며 “이동시간이 늘고 때때로 다른 업무에 적응해야 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다”고 말했다.

야간수당도 학생들이 흔히 겪는 문제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한 경우 기본급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들은 야간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를 유지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한다. 학교 주변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신재영 씨는 “야간수당 등 인건비가 부담돼 적은 인원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바 자리가 부족한 현실은 학생들이 부담한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장우영(원자력공학 2022) 씨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한 임금이 여러 곳 있었지만 새로운 알바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그냥 일했다”고 말했다.

**고수익 알바의 유혹,  
위험해진 알바 환경**

알바 고용난이 심해지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단기간 고수익 알바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알바 구인 사이트 ‘알바몬’에 ‘고수익’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니 600건에 가까운 공고가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단기간 고수익 알바는 높은 보수를 앞세워 학생들을 범죄 연루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구인 공고에는 단순 업무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 근무 환경은 유흥업소인 경우도 있다. 학교 주변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우리학교 학생 C 씨는 알바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

6 종합

# 학생회비 계좌 노린 '통장 뭉기'

## 국문과는 회비 접수 중단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서울】 국어국문학과 학생회가 최근 대학가에 확산 중인 '통장 뭉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회비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국문과 학생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학교 학생회비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국문과 학생회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당분간 학생회비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국문과 이승훈(국어국문학 2025) 회장은 “국민대와 흥익대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범죄 예방을 위해 조치했다”며 “혹시라도 불분명한 입금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생각”이라고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문과 학생회가 우려한 범죄는 소위 '통장 뭉기'라고 불린다. 이는 범죄자가 SNS에 공개된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허위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키는 신종 수법이다. 계좌 명의자에게 ‘합의금을 보내야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금전을 갈취하거나 경쟁 업체나 특정 개인·단체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비 납부를 위해 계좌번호를 SNS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대학 학생회는 이 같은 범죄에 취약한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4월 27일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피해사례다. 학생회비 납부 기간이 아니었던 당시 학생회 계좌로 정체 불명의 20만 원이 입금됐다. 국민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는 이

후 금융당국의 안내에 따라 5월 6일 오후 7시경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 접수되어 지금 정지 및 거래 제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은행이 계좌를 일방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은행은 신고 접수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며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계좌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별로 다르고 법상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또는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능하다. 그 사이 학생회 활동이 마비되는 불편을 겪는다.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법학)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지



현재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학교 학생회비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키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어국문학과 학생회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당분간 학생회비 접수를 중지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학우 여러분의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문과 이승훈(국어국문학 2025) 회장은 “국민대와 흥익대에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 범죄 예방을 위해 조치했다”며 “혹시라도 불분명한 입금이 있으면 즉각 대응할 생각”이라고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국문과 인스타그램 캡처)

급정지제도의 허점을 범죄자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비대면으로 계좌정보와 대포통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행 피해방지법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며 “소멸과 해제에 수주일의 걸리는 구조는 실시간 자금 집행이 필수적인 학생회나 소상공인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대응 방안으로 ▲신원이 확인된 학생만을 대상으로 오픈채팅이나 폼을 통해 계좌 안내 ▲학교 본부와 협의 이후 고유가상 계좌 발급 ▲계좌 노출이 없는 간편결제송금 링크 활용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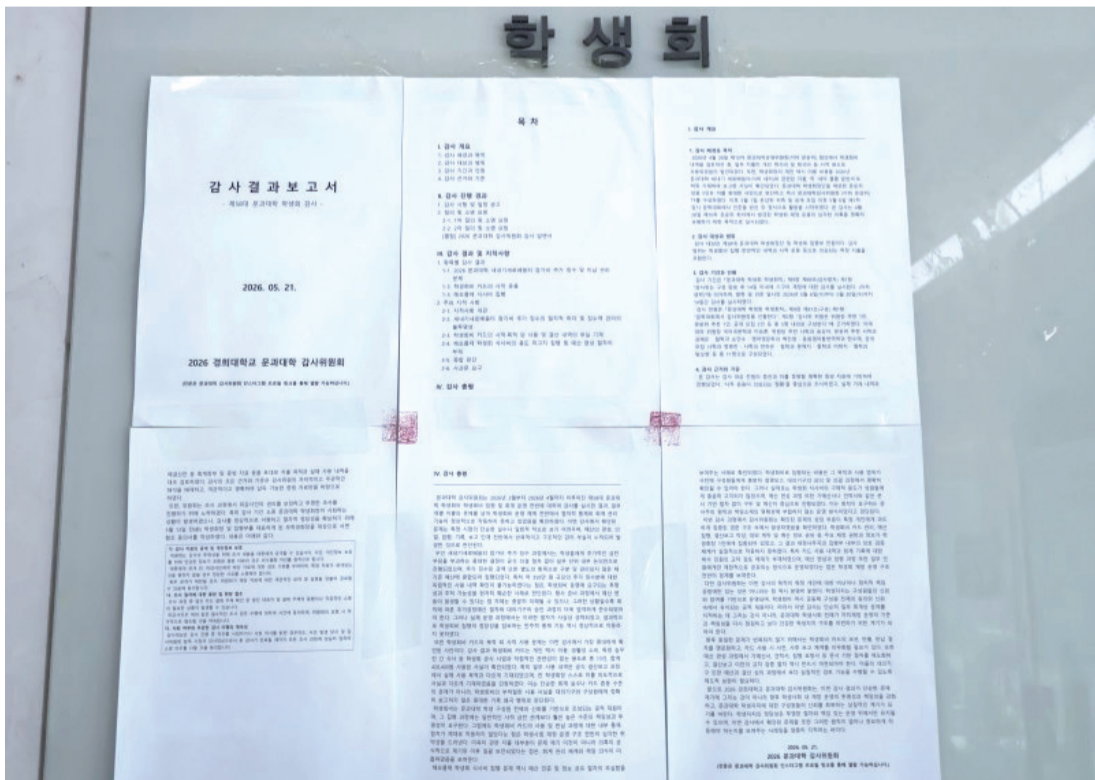
# 문과대 감사위, '학생회비 논란' 전 학생회장에 사과문 게재 요구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문과대 감사위원회(감사위)가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전 회장의 사퇴와 별개로 21일 감사를 마쳤다. 감사위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전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재정사무국장에게 공식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제1차 임시 문과대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인준된 문과대 감사위는 문과대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적 운용을 조사하기 위해 조직됐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학생회비 카드의 목적 외 사적 사용 ▲새내기 새로배움터 참가비 추가 징수 과정 ▲해오름제 학생회 식사비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학생회비 카드의 목적 외 사용은 학생회비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전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식적인 학생회 사업이 아닌 식사 비용을 학생회 카드로 지출한 건은 '사용 범위 외 지출'이라고 봤다. 또한 2월 20일 자 택시비 내역을 결산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세 지적 사항은 사안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재정 집행에 대한 회칙상 절차적 통제가 단계별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의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예찬 기자)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회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내기새로배움터 참가비 추

가 징수 과정에선 약 200만 원 규모의 학생회비가 문운위 사전 의결 없이 집행돼 회칙에 어긋났다고 판단

했다. 또한 해오름제 식사비 집행은 적법한 절차와 문서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돼 행정사무의 책

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보고서에서 “세 지적 사항은 사안의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재정 집행에 대한 회칙상 절차적 통제가 단계별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의 문제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는 전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집행부 인원 중 재정사무국장 및 재정사무국원을 대상으로 사과문 제출을 요구했다. 전 학생회장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 및 인정’, ‘학우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포함되길 권고했다. 부학생회장 및 재정사무국엔 ‘사실관계의 명확한 인정 및 책임 소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담기를 요구했다.

추가 징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이승훈(국어국문학 2025) 감사위원장은 “감사위는 학생회 차원의 활동”이라며 “대학본부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중앙회계감사위와 협조하는 등의 방향성이 있지만 이제 막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 일자리부터 주거 · 안전까지

## 정원오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청년 정책

정원오 기자 eunohdo@khu.ac.kr

# 우리신문 포함 26개 대학신문사의 연합체인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후보 · 오세훈 후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두 후보는 청년 일자리, 주거 불안 등 청년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각자가 그리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원오 후보는 3대 창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학사 전역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거 지원을, 오세훈 후보는 AI 중심 실무 인재 양성과 '서울형 새싹원룸' 공급 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한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청년의 삶과 직결된 두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정책 구상을 들어봤다.



정원오 후보는 3대 창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상생학사 전역 확대를 통한 실질적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정원오 선거캠프 제공)



오세훈 후보는 AI 중심 실무 인재 양성과 '서울형 새싹원룸' 공급 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한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사진=오세훈 선거캠프 제공)

###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Q.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공약했다.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가.**

A. 창업을 청년 일자리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서울 전체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들이 서울에서 일하며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3도심 체계를 신촌·홍대, 청량리·왕십리까지 포함한 5도심 체계로 확장할 예정이다. 즉 청년 창업 지원은 그 큰 흐름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신촌·청량리·관악에 3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도전캠퍼스에서 매년 1천 명의 도전자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창업도전수당 월 100만 원, 첫출발지원금 최대 4천만 원을 지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창업 과정에서 쌓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서울창업경험은행'에 기록해 다음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Q. 청년 주거 문제, 특히 월세 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A. 결국 신속한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청년에 특화된 청년주택 5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숙사 7천 호를 공급하고, 성동구청장 시절 모범사례를 만든 상생학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만 호를 공급하며, SH 공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청년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를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의 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원룸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 청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겠다. 또한 현재 2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월세 지원 대상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선순위 임차보증금 설정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철저히 감독하고자 한다. 공급부터 월세 지원, 피해 예방까지 하나씩 착착 해결해 나가겠다.

**Q.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시정 소통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A. 인위적인 조형물에 기대기보다 성수, 시장, 골목처럼 시민의 일상이 살아 있는 공간을 서울의 가장 큰 문화 자산으로 삼고 그 매력을 키울 예정이다. 신촌의 대학 인재, 홍대·연남의 크리에이터, 상암의 미디어 기업 등을 연결해 권역 전체의 성장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시정 소통에 있어서는 천만 시민의 불편을 제대로 알아야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문자, 전화, SNS 등 다양한 창구로 들어오는 민원을 AI로 자동 분류해 핵심을 정리하고, 일상 속 민원과 제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촘촘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AI는 정리를 돕는 도구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직접 소통하고 책임감 있게 답하는 태도라 생각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말하면 바뀐다"는 명확한 행정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용 행정을 펼치겠다.

### 기호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Q.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A.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취업난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 있다. AI 전환 시대에는 기존의 단순 코딩 교육 수준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AI 접근권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도서관과 청년센터 등에 공용 AI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을 지원해 이들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스펙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영커리언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학 단계부터 인턴십 등 실무 경험을 연결하여 2030년까지 1만 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월세 부담, 전세사기 등 청년 주거 고통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A.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출발선의 문제이다. 단순한 공급을 넘어 대학 입학부터 내 집 마련

까지 이어지는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전세계약에 위험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서울찬스'를 만들겠다.

**Q. 교통비 부담, 노동 환경, 일상 속 안전 등 청년들과 밀접한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가.**

A. 청년들의 일상과 맞닿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촘촘히 보장하겠다. 우선 기후동행카드를 K-패스와 결합해 '서울기후동행패스'로 업그레이드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울 구간에도 적용해 광역 통근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서는 산재 및 건강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쉼터를 늘려 사각지대 없는 노동 안전망을 구축한다.

여성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나데이트폭력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피해자 원스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10분 운동권'을 조성해 청년들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8 문화

# 장난감으로 위로받는 시대... 대학가 키덜트 열풍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청년·학생 문화 트렌드 열한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과 자아를 찾아가는 청년 세대의 키덜트(Kid+Adult) 문화를 살펴봤다.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가 촉감형 완구와 커스터마이징 형식의 장난감을 소비하는 것은 청년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완구가 주는 감각에 집중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일상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인 동시에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학생들을 만나 장난감에 빠진 청년 세대의 심리를 들어봤다.

## 말랑이, 악뿌불, 키캡까지 '가성비 행복'에 동심 사는 청년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장난감을 찾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말랑말랑한 촉감의 '말랑이', 손으로 눌러 공 안의 왁스를 터뜨리는 재미를 강조한 '악뿌불', 작은 기계식 키보드를 누르는 '키캡'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격 부담이 낮으면서 즉각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패션잡화 애플리케이션 에이블리 공식 집계 자료에 따르면 키캡 키링 거래액은 전년도 대비 약 175배 증가했다. 악뿌불과 말랑이는 각각 약 20배, 약 5배 늘었다.

우수민(사회학 2025) 씨의 손에는 늘 말랑이가 쥐어져 있다. 5,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말랑이를 구매한다는 우 씨는 "이동할 때나 과제할 때 습관적으로 말랑이를 만지곤 한다"며 "유년 시절의 감성과 추억을 불러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했다. 힘들 때마다 말랑이를 만진다는 신민주(회화 2025) 씨 역시 "악뿌불 특유의 오도독하는 소리가 청각적인 재미를 더해준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0·30 세대의 완구 관련 지출은 2024년도 대비 224% 급증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기준 올해 국내 키덜트 시장의 규모가 1조 6,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열풍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창신동 문구시장에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표현을 위해 장난감을 찾는 대학생들의 키덜트 문화가 크게 번성하면서, 창신동 문구완구거리가 청년들로 북적인다. (사진=도은오 기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나 악뿌불 같은 촉감형 완구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사진=서라수 기자)

서 '삼영사'를 운영하는 이월용 씨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 손님이었다면 최근에는 20~30대 손님이 훨씬 많아졌다"며 "SNS에서 유행한 제품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 레트로 장난감이나 추억의 문구류를 찾는 젊은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 '촉감형 장난감'과 함께 단순한 자극을 통해 얻는 안정

사회심리학을 가르치는 최혜원(사회학) 교수는 이같은 열풍의 배경에는 단순한 취향 소비 이상의 정서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단순하고 익숙한 놀이 요소는 일상 속에서 작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며 "최근의 키덜트 문화는 청년 세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취향과 감정을 관리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말랑이나 악뿌불 같은 촉감형 완구는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만지는 단순한 행동 자체에서 재미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유진(중국 어학 2024) 씨는 SNS를 통해 장난감을 접한 뒤 이른바 '말랑이 성지' 동묘까지 찾아가 구매했다. 이 씨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장난감을 만지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이성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가 나지 않아 수업 중 졸음을 쫓기 위해 몰래 만지거나, 시험 기간 밤을 새울 때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만지는 행동, 일정한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행위처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감각 자극은 긴장을 완화하고 통제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이러한 완구류의 유행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청년 세대의 대응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유'를 넘어 '표현'으로 본인만의 커스터마이징

키덜트 소비는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커스터마이징'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계식 키보드의 자판 단추를 교체하는 키캡 꾸미기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바꿔 끼우는 것처럼 키보드 자판을 빼내고 좋아하는 색상이나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단추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미니 피규어나 아기자기한 장식품을 따로 구매해 붙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가방에 키링과 인형, 스티커 등을 달아 꾸미는 '백꾸(가방 꾸미기)' 문화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맞춤형 기성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배지를 추가해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매일 쓰는 다이어리를 스티커와 마스크 테이프로 아기자기하게 채우는 '다이어리 꾸미기(다꾸)'는 기본이고, 최근엔 평범한 볼펜 대에 귀여운 인형이나 비즈 장식을 달아 자신만의 필기구를 만드는 '볼펜 꾸미기'까지 등장했다.

우 씨는 "요즘 들어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상품을 꾸미는 분위기인데, 개성을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라며 "취향껏 꾸며진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서현(국어국문학 2021) 씨는 "학교생활은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꾸미는 것은 온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교수는 "청년 세대는 기성품을 그대로 소비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합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러한 소비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의 키덜트 문화는 청년 세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취향과 감정을 관리하는 문화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인간 고유성의 본질을 묻다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인공지능 이후의 인간 고유성을 정면으로 묻는 책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을 발간했다.

미래문명원장 이한구(철학) 교수를 중심으로 AI 전문가 이경전(경영학) 교수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현대 문명의 전환기의 쟁점을 다루는 문명연구 총서 시리즈의 제7권이다.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한구 교수는 AI 격변을 4단계로 설명하며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변곡점으로 진단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전 ▲2022년 말 등장한 ‘생성형 AI(챗GPT)’ ▲‘에이전트 AI(행위형 인공지능)’로의 발전 ▲머리만 존재하던 AI가 물리적인 몸을 입는 ‘피지컬 AI(몸체형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의 등장까지 4단계다. 이

교수는 “머지않아 인간과 구분하기 힘든 로봇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돼 가사 노동과 간병 등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AI 발전을 두고 “인간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예측시킬 위험을 품은 양날의 검”이라며 ‘주체성 역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간이 고도화된 AI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결국 주인이었던 인간과 노예였던 기계의 지배 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지능’ 단계에 도달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초지능 상태에 접어들기 전 다자간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AI에 무책임하게 기대면 인간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며 개인 역시 AI를 적극



이한구 교수는 이런 AI 발전을 두고 “인간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예측시킬 위험을 품은 양날의 검”이라며 ‘주체성 역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내 AI 교육 시간을 늘리고 중점 학교를 확대하는 등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AI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정책이 단순한 기

능 교육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에 예측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교정하는 방법, 즉 ‘어떻게 써야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것인가’를 함께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경전 교수는 <AI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이해결 문제> 장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전혀 다른 공학적 각도에서 바라본다. 그는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로 의인화하는 시선을 가장 큰 오해로 꼽으며 “AI를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로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챗봇과 에이전트를 만들어볼 때 비로소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객관화할 수 있다”며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습 대상으로 끌어당긴다.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이 흥미로운 점은 철학자와 공학자의 상이한 기준과 해석을 한 권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공지능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배우고 활용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낙관과 공포 사이에서, 기술 자체를 넘어 인간과 문명에 대해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 여덟 명의 선녀로 표현한 이상형

경희기록관 이금화

### 경희의 유산 ④ 『경희인상』

서울캠퍼스 교시탑을 지나 호텔관광대학 옆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온다. 오른쪽은 미술대학으로 향하는 길, 왼쪽은 경희여중·고로 내려가는 길. 그 너머로 선 동호가 펼쳐져 있다. 그곳에 여덟 명의 인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을 한 청동빛 조형물이 서 있다. 흔히 ‘팔선녀상’이라 부르는 이 조각상의 정식 명칭은 ‘경희인상(慶熙人像)’. 1969년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경희학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제작했다.

너비 6.6m, 높이 3.3m 규모의 이 조각상은, 무지개 모양의 아치 위에 여덟 명의 선녀가 한국 전통 악기를 하나씩 들고, 사이좋게 몸을 맞댄 채 줄지어 날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인물이 여덟 명인 것은 종합학원 체제인 경희학원의 교육기관이 당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총 8개였기

때문이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이디어를 미술대학 이종각 교수(당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가 형상화했다. 1969년 10월 30일 열린 경희인상 제막식에는 경희유치원 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구성원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각상 속 인물을 왜 선녀(仙人)로 표현했을까? 제막식 당일 발간된 대학주보에는 그 이유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돼 있다. “신통 자재하고, 변화 무변한, 즉 도통(道通)한 사람을 선인(仙人)이라고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희인들은 이제 이상을 거울 삼아 악한 마음을 없애고,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의에 가득 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적 미를 표현한 선녀의 모습을 통해 경희의 젊은 학생들이 지닌 꿈과 낭만을 나타내고, 여덟 명이 사이좋게 날아가는 모습은 경희인의 굳은 협동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 푸른 하늘을 향해 웅비하는 모습은 한없이 뻗어가는 경희인의 상상력과 창

의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경희인의 진취적 기상을 나타낸다.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처음 조각상이 세워질 당시 무지개 모양의 아치에는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1949년 개교 이래 20여 년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창조해 온 경희인들에게 줄곧 지표가 되었던 ‘이상은 천국을 날고 의지는 역경을 극복한다’는 문구다. 경희인상 제막식이 열리던 날, 맑은 가을 하늘을 장식한 대형 애드벌룬과 오색 풍선 아래 경희의 캠퍼스는 그야말로 잔칫집이었다. 선동호에 조성된 폭포에 처음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낙류식(落流式)이 열렸고, 지금은 사라진 대운동장의 본부석 낙성식도 이날 오후 연이어 개최됐다.

선동호를 흐르던 분수 소리도, 드넓은 대운동장을 내려다보던 높은 본부석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추억 속 존재가 되었지만, 경희인상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는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는 문구로 이어져 지금도 여전히 학생회관 입구 머릿돌에 남아 있다.



개교 20주년 경희인상 제막식이 열린 1969년 10월 30일, 수목이 우거진 현재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10 종합

# 배구부, '2026 KUSF U-리그' 2연승 질주

김예찬 기자 yechan@khu.ac.kr

【국제】 배구부가 최근 '2026 KUSF U-리그' 2연승으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구부는 15일 경일대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23, 25-18, 25-16)으로 승리했다. 접전 양상을 보였던 1세트 후반 18-20로 세트를 내줄 위기에 처했으나 타임아웃 이후 주장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강력한 스파이크로 격차를 좁혔다.

분위기를 가져온 배구부는 김수창(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와 정송윤(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1세트를 따냈다.

이날 경기는 팀의 주축인 4학년 염 선수와 이정민(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각각 10득점으로 선전했다. 염 선수는 "현재는 강한 서브를 통해 상대의 리시브를 흔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공격수들이 책임감을 갖고 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격 훈련에 힘쓰고 있고, 이를 위해 수비와 연결 플레이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한 달 전에 열렸던 홍익대와의 경기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중요한 경기였는데 패배해서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 경기는 득점을 위해 이단 공격과 연결을 위주로 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배구부는 지난달 16일 호남대와의 홈경기에서도 세트 스코어 3-0(25-11, 25-22, 25-14)으로 승리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이같은 연승은 지난달 3일 홍익대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20-25, 17-25, 25-27)으로 패배한 이후 달



배구부가 15일 '2026 KUSF U-리그' 경일대 원정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으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구부 프런트 쿠볼리 제공)

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구부 이행 감독은 "홍익대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서브를 보완

하는 연습에 집중했고, 선수들이 훈련에 더욱 매진하며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염 선수는 "홍익대 경기에선 확실한 결정력이 부족했다"며 "성공적으로 수비가 이뤄진 뒤 공격으로 연결할 수 있었던 찬스에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앞으로 가장 보완하고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선수는 "홍익대 이후에 상대했던 팀들이 상대적으로 약팀인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며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다독이며 남은 강팀과의 경기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구부는 오는 28일 선승관에서 성균관대를 상대로 홈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선수는 "성균관대전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라며 "결과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지만, 최대한 덜어내고 순간순간의 과정에 착실하여 결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인포21 '2차 인증' 9월부터 선택 사항으로

박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인포21 2차 인증 제도가 오는 9월부터 선택적

인증 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2차 인증 제도는 지난 2월 12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인포21을 대상으로 한 공격으로 학생 89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이에 정보처는 피해 계정의 인포 21 패스워드 초기화, 피해자 개별 통지, 개인 정보 침해 신고 등을 통해 조치한 바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처는 교외에서 인포 21에 접속할 경우 2차 인증을 도입해 추가 인증을 거치게 했다.

2차 인증은 본래 교직원에게만 적용됐던 것으로 로그인 이후 ▲이메일 ▲휴대폰 ▲OTP(일회용 인증번호)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정재영(골프산업학 2025) 씨는 "원래 없던 2차 인증이 갑자기 요청돼 거부감이 들었다"며 "단순히 앱 접속을 위해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등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했다"고 말했다. 교내 무선랜(Wi-Fi) 서비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외로 인식돼 불필요한 2차 인증이 요구되는 상황도 있었다.

정보처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부터 2차 인증 제도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문인식, 안면인식과 같이 더 간소하고 고도화된 인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원 정보처장은 "지금 당장 고도화된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통합앱의 진화를 통해 단말에 특화된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 기능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범용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 Global Collaborative 2026 Summer Program

From Seoul to the World

"국내외 석학 및 국제기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세계 여러나라 학생들과의 교류의 장을 경험하세요!!"

- 프로그램 기간
- 개설강의
- 참여대상
- 신청방법
- 장학금

2026. 06. 30.(화) ~ 07. 20.(월)  
 "Humanity, Civilization and Global Governance"에 특화된 23개 강의 (GC홈페이지 참조)  
 국내외 대학(원)생  
 2026. 06. 12.(금) 까지 GC 홈페이지 내 신청  
 조교장학: 강의료 100% 감면 (강의 당 1명씩 모집)  
 경희대 동문자녀장학: 강의료 30% 감면  
 경희대 교직원자녀장학: 강의료 50% 감면  
 미래문명원 Tel: 02-961-0995~6 Email: summer@khu.ac.kr 홈페이지: http://gafc.khu.ac.kr/gep

수강신청 바로가기



사설

# 후마, 지원 없이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후마 설립자인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은 우리신문과의 대담에서 “학문과 인간을 위한 후마 정신을 기억하되, 변신을 통해 후마의 생명력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마 설립자가 말하길 후마는 처음부터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돼야 할 학문적 실험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후마의 개선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다른 아닌 예산이다.

후마는 기본적인 강사료나 수업 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자율 예산을 배분받지 못한다. 일반 단과대학은 소속 학부생 수를 기준으로 자율 예산이 편성되지만, 후마는 소속 학부생이 없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본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대부분 반려다. 학생 독서모임 지원, 방학

프로그램, 교수 간 공동 연구 등 설립 초기 후마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는 후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여러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마의 취지이나, 현재로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의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산 부족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후마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활동 기반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수업 자체를 위한 예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2회차 기사를 준비하며 만난 후마 소속 교수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이후로 예산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대학 전반적으로 삭감됐던 예산이 학과와 단과대학에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반면, 후마의 예산은 여전히 삭감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예산 축소는 교수 총원 중단으

로도 이어졌다. 국캠 후마 소속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후마에는 신규 교수가 단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교수들이 떠나는 빈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이들에게 강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교수들이 함께 모여 수업의 방향을 논하고 교재를 다듬던 워크숍과 세미나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를 거듭하며 축소됐다. 과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수업의 질이 유지되길 기대하는 것은 교수들 개인적 헌신에 교육을 통째로 떠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다.

교수 총원, 워크숍 축소,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멸. 겉으로는 각기 다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 후마에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 상황을 외면하기만 한다면 후마는 점차 꺾어지지만 남은 기구가 될 것이다.

수업 자체는 유지되고 학점도 부여되겠지만, 정작 그 안을 채워야 할 교육 철학과 인간의 가치 함양은 자원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설립 초기 후마와 오늘날 실제 현장의 후마 사이 거리는 더욱 벌어지고, 학생들이 후마를 ‘단순 교양 수업’이라 인식하는 현실은 고착될 것이다.

후마가 스스로를 혁신하려 해도 그 혁신을 뒷받침할 자율 예산의 보장 없이는 어떤 변화도 원활히 진행될 수 없다. 대학 본부가 후마에 안정적 자율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자율 예산을 배정 받는 일반 단과대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학과, 어느 단과대학이든 예산 부족은 고질적 문제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의 유무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안정된 예산이 있어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시봉

# 무기력 세대



박류빈 기자  
f508f508@khu.ac.kr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청년’을 외치지만, 정작 주변 친구들은 여론조사 전화조차 단호히 끊어낸다. 누가 당선되든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를 정치 무관심 세대라 부른다. 과연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다. 과거 세대가 5.18 민주화 운동 등 굽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특정 정당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왔다면, 우리 세대는 다르다. 과거의 진영 동원이나 당파 싸움은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청년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취업·주거·재테크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정치인에게 듣고 싶다.

양캠프가 위치한 동대문구와 수원시의 공약을 살펴봤다. 대학이 밀집한 동대문구는 청년 비용이 높음에도, 공약속 청년은 여전히 문화 거점을 즐길 복지의 수혜자로만 그려진다. 수원시 역시 단기 현금성 지급 형태의 무상 인강 확대에 머문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이라는 글자만 들어갔을 뿐이지 깊은 고민은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달 정부는 청년정책 전반에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막대한 예산 배정이 올해 뿐이겠는가.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취업난, 주거불안, 사회관계 단절, 정신건강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장 돈만 쥐어주거나 단기 인턴 프로그램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의 근본적인 불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아가 체감도 낮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는 정당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정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두 번의 탄핵 정국 속에서 분출된 목소리가 이를 증명한다. 문제는 청년이 왜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지, 청년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정치권의 게으름이다. 기성 정치권이 진정으로 변화할 때 청년의 관심은 따라간다.

동시에 청년 역시 무기력에 빠져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는 우리를 지운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안전한 알바환경을 위해서

# 유혹의 손길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범죄 연루와 폭력의 위험이 대학생 알바 환경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최흥기 교수는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해 고수의 알바에 쉽게 유혹받기 쉬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 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동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적 장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앞서 청년층 스스로의 경계심이 필요하다. 고수의 알바는 ‘그냥’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30대 이하 청년이 53.7%를 차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수의 알바 홍보를 통해 범죄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에게 당장의 생활비와 용돈이 급한 청년들이 가장 최적의 타겟이 되는 것이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 높은 시급과 빠른 수익을 앞세운 알바일수록 그 이면을 따져봐야 한다. 고수의 알바를 경계하고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는 일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만평 고수의 알바의 이면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재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 89학번 아버지의 치열했던 청춘 따라 20대 대학생 기자가 마주한 '5월 광주'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둔 지난 16일 광주에 다녀왔다. 89학번으로 대학에 다녔던 아버지의 '광주에 함께 가자'는 말에 젊은 시절을 따라나섰다. 민주화운동을 하며 대학교에서 모르는 할머니를 어머니로 불러 경찰 눈을 속여 탈출했던 이야기, 그 당시 만난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아주 와닿지는 않았다. 광주에 가지는 제안은 부모님을 더 이해할 기회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대학 시절을 흔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민주주의의 가치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 5·18 민족민주열사 구묘역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

3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광주는 아주 맑고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었다. 우리는 망월동의 5·18 민족민주열사 구묘역에 먼저 들렀다. 그곳엔 아버지가 대학 시절 함께 운동했던 '가톨릭평화공동체' 소속 친구분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들이 종교시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성당이나 교회에서 민주화운동이 활발했다고 한다.

구묘역 유영봉안소에는 1980년 이후 돌아가신 호남에 연고를 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유영이 봉안돼 있었다. 1987년 시위 도중 최루탄에 머리를 피격당해 사망했던 이한열 열사 유영도 볼 수 있었다. 과거 아버지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함께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끝까지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 시절이 지났음에도, 이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아버지와 동료분들의 눈동자가 살아나는 듯했다.

유영봉안소에서 나와 묘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다들 바다에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길래 '이게 뭐가' 했다.

1982년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부부의 비석을 이곳으로 가져와 파묻어 참배객 발 아래 놓은 것이다. 비석을 밟고 가는데 고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밟고 지나가니 웃기도 했다.



① '자주경희' 깃발을 흔들며 가는 경희총민주동문화 ② 태극기를 나눠 들고 행진한 광주 고등학생들 (사진=이서현 기자)

## 열사 묘지에서 '자주경희' 깃발을 만나다

학교에서 배웠던 박종철, 이한열 전태열 열사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열사들이 이곳에 계셨다. 탄압에 맞서 분신 항거를 했거나 신군부 세력의 총에 맞고 옥상에서 떨어지는 등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린 고등학생들부터 90대 노인 분들까지 그날 쓰러져간 분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적혀있었다. 열사 묘지에 국화를 놓아드리며 참

배하며 묵뎀으로 느껴지는 뜨거운 태양에 땀이 나고 어지럽기도 했다. '46년 전 5월 18일에도 이렇게 더웠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대학 민주동문화 깃발이 저마다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학교도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었다. 한국외대 동문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학교 민주동문화의 자주색 깃발이 휘날렸다. 인터뷰를 요청드리니 경희총민주동문화 전 회장인 정해랑(국어국문학 1977) 동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선배님께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기 전과 후의 서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운집했으나 군부의 무력 진압을 피해 스스로 해산했던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다. 정 동문은 "그때도 계엄이었어. 비상계엄을 확대하면서 휴교령을 때려버렸거든. 그래서 공수부대가 대학에 진주해 있었어"라며 그때를 떠올렸다. "우리학교는 청량리, 서울대면 영등포, 연세대는 신촌에서 모여야 하는데 겁나서 누가 모이겠어... 그걸 뚫고

시위를 한 데가 바로 광주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학교에서도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움직임이 있었다. 학교 대표 6명이 주도한 시위에서 의대 3학년 여학생이 자신의 동맥을 그으면서까지 군부 독재에 맞섰다. 지금 우리가 매일 오가는 문과대 건물 옥상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고 한다. 유인물을 뿌리고 경찰들이 몰려오면 숨고, 밧줄을 타고 건물을 탈출했다. 그 시절의 풍경이 지금 내가 다니는 교정 위로 생생하게 겹치며 신기함이 밀려왔다.

정 동문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 한림원에서 연설했던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에서 영감을 받아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것도 물론이며, 반대로 산자가 의롭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살아있는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기억하고, 또 아직도 진상 규명이 안 된 일들을 과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연하게 누려온 민주주의 윗세대의 피로 쓴 유산

묘지에서 금남로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광주의 고등학생들,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협회, 공공운수, 금속, 배달플랫폼 등 다양한 노조의 깃발들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정문에서 금남로로 향했던 '민족민주화사회행진'을 재현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됐다.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의 깃발과 피켓을 들고 전남도청으로 행진했다. 행진을 본 이후엔 전일빌딩에 방문했다. 전일빌딩은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과 함께 시민군이 끝까지 싸웠던 건물이다. 이 건물에 가니 헬기에 의한 총격 흔적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그동안은 민주주의를 그냥 내가사는 국가의 체제이며 가장 합리적인 체제인 정도로 여기며 살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보다는 현재의 갈등과 혐오를 더 큰 문제로 느끼면서 살았다.

우리 윗세대의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갔고, 유달리 끈끈해 보이는 부모님을 보며 신기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 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보게 됐다. 지난 12·3 계엄사태와 박근혜 퇴진 시위 등 내가 자라오면서 본 평화 촛불 시위는 윗세대들의 피로 물들어 만들어진 것을 배웠다. 80년대 무렵 학생들이 주도해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가 곧 그 시절 청년들의 가치였다는 점을 알았다.